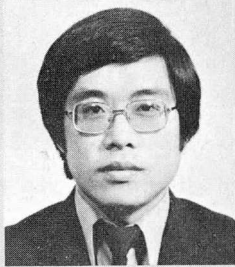


이달에도 약보합세 지속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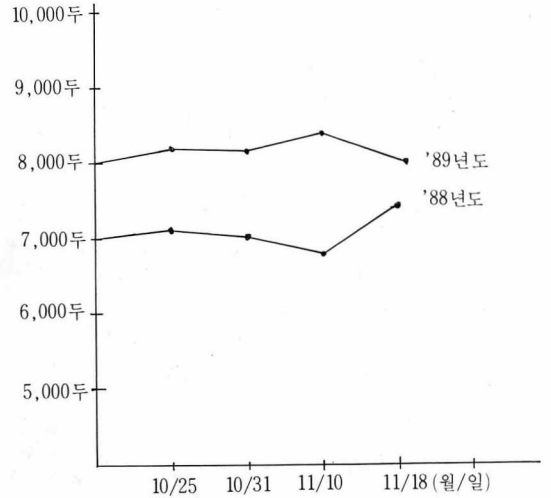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최근의 양돈 경기동향

양돈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최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육 kg당 1천3백원대에 형성되고 있어 평균 생산비 1천8백원보다 5백원정도 하락된 시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9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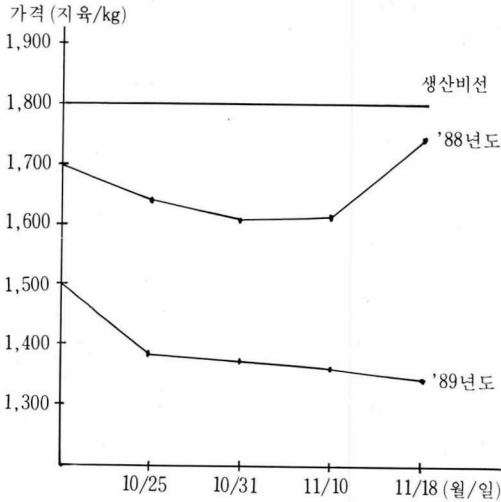
(표) 서울 3개 도매시장의 돼지 지육경락 시황

의 양돈시황을 살펴보면, 총경락두수는 22만1백87두로서 1년전보다는 3만48두(15.8%)가 증가되었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87원으로 전년동기 1천6백48원보다는 2백61원(15.8%)이 하락되었고, 최고가격은 1천4백87원(10월 20일), 최저가격은 1천3백16원(11월 14일)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을 보면,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66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7백17원보다 3백51원(20.4%)이 하락되었다. 최고가격은 10월 20일의 1천6백77원, 최저가격은 10월 31일의 1천2백30원에 거래되었다. 총경락 마리수는 3만4천7백95두로서 1년전의 2만7천3백61두보다 7천4백34두(27.2%)가 증가되었다.

대구지역을 보면, 총경락마리수는 2만8천11두이며, 1년전과 비교하면 4천92두(17.1%)가 늘어났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4백30원으로 1년전과 비교하면 2백21원(13.4%)이 떨어졌으며, 최고가격은 10월 28일의 1천5백32원, 최저가격은 11월 17일의 1천3백33원을 나타냈다.

부산지역 양돈시황을 보면, 총경락 마리수는 6만8천8백21두로서 1년전의 5만4천9백61두보다 1만3천8백60두(25.2%)가 늘어났고, 최고시세는



〈표〉 서울 3개 도매시장의 돼지지육 가격추이

10월 28일의 1천4백71원, 최저가격은 10월 25일의 1천2백17원이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66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6백7원보다 2백41원(15.0%)이 떨어졌다.

광주지역의 총경락마리수는 1만2천6백18두로서 1년전의 9천3백82두보다 3천2백36두(34.5%)가 증가되었다. 최고가격은 1천4백11원(10월 31일), 최저가격은 9백72원(11월 8일)이며, 평균가격은 1천2백67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5백80원보다 3백13원(19.8%)이 하락되었다.

한편, 도축두수를 보면, 9월말 현재 총도축두수는 6백66만4천두로서 전년동기의 5백57만4천두보다 1백9만두(19.6%)가 증가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71만8천두, 2월 61만4천두, 3월 72만2천두, 4월 69만두, 5월 76만5천두, 6월 73만8천두, 7월 74만9천두, 8월 83만7천두, 9월 83만두가 도축되었다.

또한, 돈육수출실적은 '89년 10월까지의 총수출실적은 8천1백68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1%가 증가되었다. 돈육통조림 수입실적은 1천9백87톤으로 전년동기의 1천6톤보다 9백81톤(97.5%)이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4백21만7천불로 전년동

기의 1백86만9천불보다 98만1천불(125.6%)이 늘어났다.

또한, 현재 돈가의 급락으로 정부는 수매를 11월 1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별 수매실적은 한국냉장 1천톤, 서울경기·대구 경북·부산경남양돈조합이 7백30톤, 그리고 수출업체(동남육가공·청양식품·신창상역·삼원농역·영보물산)에서 7백70톤 등 총2천5백톤을 전국 일원에서 수매를 하나 돈가하락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양돈전망

'89년 9월의 사육두수중 비육돈의 월령별 분포현황을 보면, '89년 12월부터 '90년 1월에 출하될 2개월령 미만의 사육두수는 1백72만3천두로서 전년동기보다 10만8천두(6.7%)가 증가되었다. '89년 11월과 12월에 출하될 2~4월령의 사육두수도 1백91만5천두로서 전년동기보다 18만4천두가 증가되었다.

한편 해외공급인 돈육통조림 수입물량은 급격히 늘어나, 4/4에는 4백톤(8천두분)정도 수입돼 더욱 돈가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육수출은 11월과 12월에 2천톤을 수출해야 목표달성이 무난하나, 12월에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물량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목표달성 1만톤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돈육과 가장 대체관계가 큰 수입쇠고기도 연말연시에는 저가로 대량 방출될 것으로 보여 연말의 돈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연말연시와 구정으로 연말과 '90년 1월에는 수요가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생산비 지육 kg당 1,800원선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 연말의 돈가는 약보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